

성인문해와 기초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신민선(서울여자대학교)

1. 들어가며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합의한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문서에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 One Behind)’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 평등한 교육을 위한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담겨져 있다.

17개 목표 중 SDG 4.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목표로서 4-1~4.7을 보면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이수 보장,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 접근 보장, 기술교육, 직업 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세부 목표 4.6에는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기능적 문해력과 수리력을 최소 일정 수준 이상 올려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과거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빈곤 감축과 개도국 중심의 인간개발, 사회개발을 범 세계적 의제로 다루었다면 SDGs는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차원에서 보다 양질의 교육과 모든 학습자를 포용하는 교육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평성과 포용의 관점에서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에 참여한 152개국 중 19%의 국가가 성인학습 및 교육 예산으로 전체 교육 예산의 0.5% 미만을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14%는 1% 미만을 지출한다고 보고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이는 여전히 성인학습 및 교육에 있어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의 제3차 조사 결과에서도 2017년 멕시코 성인의 51%, 페루의 71%, 에콰도르의 72%가 최소 문해 수준 이하이며 미국의 경우도 수리력에 있어 최소 숙달 수준 이하의 비율이 2012-2014년 27.6%에서 2017년에는 29.2%로 증가하였다(유네스코, 2021).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86%와 청소년의 92%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SDG 4. 달성을 위한 성인 문해의 현실과 미래는 녹록치 않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과거 최빈 수원국의 경험을 갖고 있

다. 2010년 1월 1일부터 정식 DAC회원국이 되면서 정식 공여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사례는 전 세계 개발 협력 역상에 있어 명실상부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구호기관의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의 발전을 이룬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경제성장을 일군 대한민국이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9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름을 바꾸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그 중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학교 교육 중심의 이해에서 성인 평생학습으로 경험의 지평을 확산시킨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교육부가 광명, 진안, 유성을 1호 도시로 지정하면서 2021년 현재 총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75%가 넘는 181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평생학습도시 정책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성인 평생학습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해교육 또한 이러한 정책적 맥락에서 점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를 가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성인문해교실을 접할 수 있고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초등·중등 학령을 취득할 수 있는 학령인정제도가 도입되었다. 2017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사한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 인구는 약 311만명으로, 이는 전체 성인의 약 7.2%에 해당된다. 또 20세 이상 성인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 학력 미만의 저학력 인구는 약 517만명으로 전체 성인의 13.1%가 문해교육의 대상자이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앞서 152개국 중 19%의 국가가 성인학습 및 교육 예산의 0.5% 라는 저조한 지출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 또한 예외가 아닌 상황¹⁾이기에 이 정도의 문해율은 상당한 성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EBS1 TV²⁾에서는 우리나라 실질 비문해율은 무려 75%라면서 우리나라 문해력의 실제 현실을 다루기도 했다. 10명 중 7명은 글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이다. 수치상으로는 비문해력이 낮아도 단순히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문해력의 문제를 짚은 것이다. 학력(學歷)은 높아가는데 이에 반해 학력(學力)이 그만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읽고 쓰고 셈할 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의 괴리를 어떻게 평생학습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여국으로서 개도국에 비해 교육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1) 교육부 예산 중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532,433,000천원으로 전체 교육부 예산의 0.76%에 해당됨. 대부분의 교육 예산은 0세~18세의 학령기 학생의 교육에 집중되고 있음(교육부,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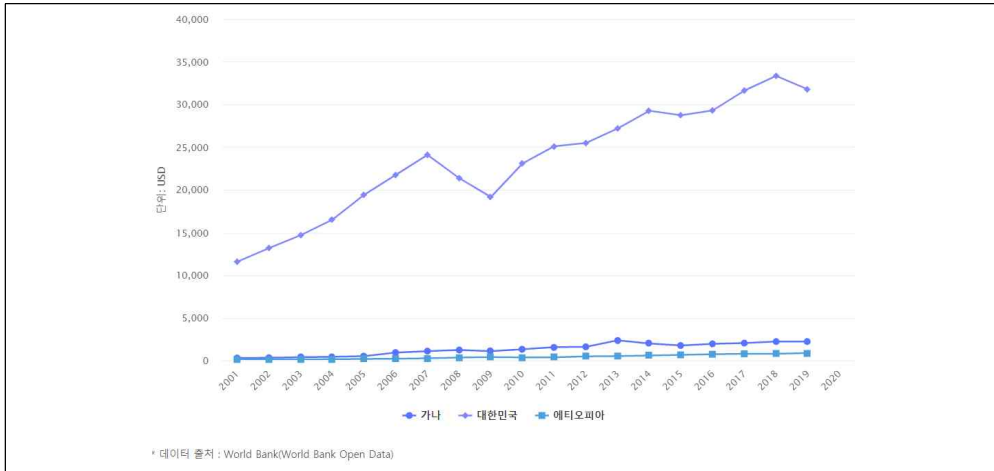
2) EBS 미래교육 플러스 ‘배움의 기초, 문해력’ 1부 문해력, 왜 중요한가? (2021. 2. 25. EBS 방영)

평생학습의 가치와 개도국 중심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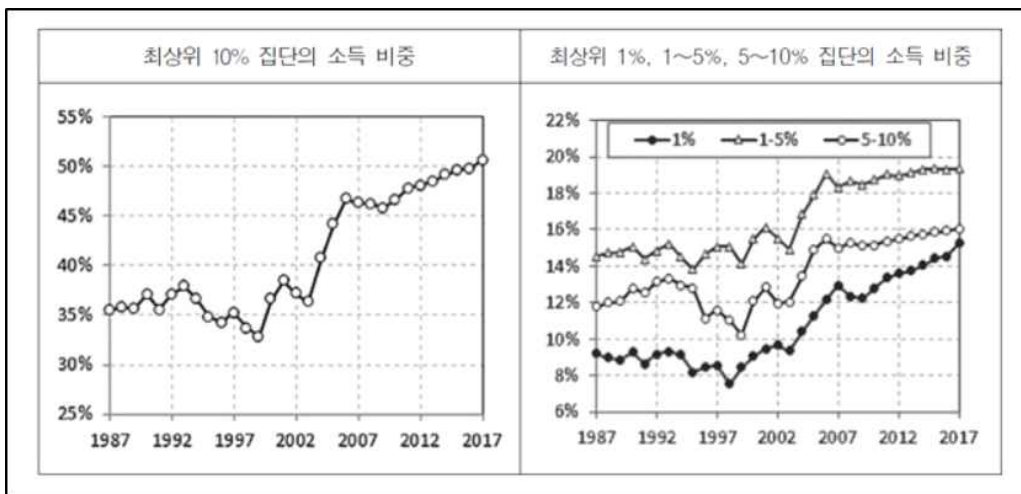
2. 한국 사회 - 삶에 대한 두려움

대한민국 청소년의 삶이 우려스럽다.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학생들은 곧 줄에서 떨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들로 하루를 온전히 채우고 있다. 청년들은 어떤가? 취준생, 졸업유예 등 예전에는 없던 신종 단어들이 학생들의 미래를 유예한다. 그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불공평한 사회에 익숙해져 있고 인서울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에서 대다수의 청년들은 실패자가 된다. 결혼을 해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사회이다. 아이 낳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불안감에 결혼을 해도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정부에서 고강력 저출산 대책을 내세워도 젊은이들은 꿈쩍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이미 아이 낳아 키우기 녹록치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자식에게 나의 경험적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령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유소년 100명당 138.8명이다. 2031년에는 272.4명을 예상하고 있다. 10년만에 거의 두배 이상의 부담이 늘어난다. 2020년 12월 기준 0~만 18세 인구를 보면 8,335,32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23%이지만 만 19세 이상 성인은 43,013,940명으로 83.77%이다. 이미 한국은 고령화사회이다. 그렇다면 고령자의 노후는 어떠한가? 개인적인 경험이겠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편안한 노후가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하는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평균인 14.8%의 3배에 달한다. 길거리를 가다 노인을 만나면 2명 중 1명은 빈곤층이라는 의미다. 그나마 노후 설계를 고려하고 있는 고령자들은 평생학습 기관에서 자격증 따기가 바쁘다. 평생학습이 보험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분명 평생학습은 행복할 수 있는 권리,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불안한 노후를 위한 즉, 예상되는 결핍에 대한 자구책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성장은 어떠한가? 2019년 기준 1인당 GDP 기준은 USD 31,761에 달한다. 개도국인 가나와 에티오피아의 USD 2,202.12와 USD 771.52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성장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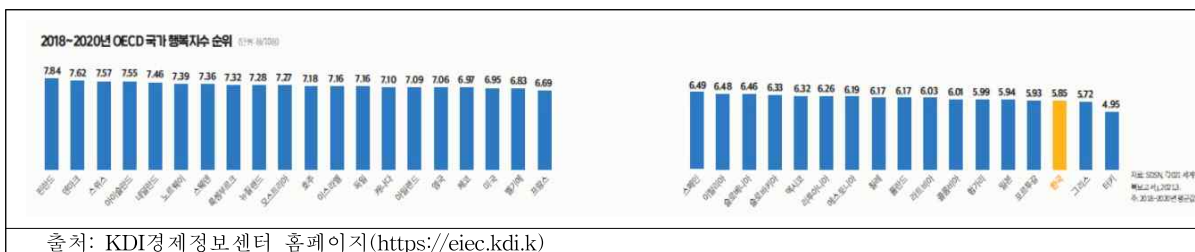


그런데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불공평한 소득 비중이 존재한다.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이 거의 50%를 넘으며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의 가파른 상승이 눈에 띈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2019). 월간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한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2021)는 우리나라의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한국이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이었다”라고 분석했다.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이며 OECD 37개 중 35위를 차지한 것이다.



살만한 세상이 왔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살만하지 않는 모순이다. 2020년 기준 만 25세~79세 성인의 평생학습의 참여율은 40.0%(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 삶의 두려움은 커지는 것이다.

3. 성장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성장은 항상 선진국식 모델에 기반한 우리의 규범을 만들어왔다. 즉, 공여국으로서 우리가 수원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항상 선진국의 경험은 옳다’였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온 국민의 교육적 열기에 기반했기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은 개도국에는 매우 적절한 모델이 되었다.

물론 GDP의 성장은 거시 경제 운영의 신호로써 국력 비교와 평가 기준에 기여한 바가 크다.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의 상징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분명 삶의 조건에서 성장이 놓치는 것이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 결과 우리가 얻은 오염과 자원 고갈, 건강의 위협, 불평등, 범죄 및 가정 붕괴 등 그 이면에 가려진 위험들이다. 현재 전 세계가 경험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또한 생태계 파괴에 따른 재앙이다.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은 살아남기 위한 학습이 되고 학령기 학생들의 학습은 수능에서 살아남는 학습이 되고 있다면, 이제는 한국 사회가 경험한 성장 중심의 교육 결과 현재 우리가 무엇을 치루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반성이 필요하다. 즉,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교육이 또 다른 도구가 되어 개도국에서 재생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이며 문제 제기이다. 이제는 성장적 가치를 넘어 정신적, 문화적 성숙을 지향하는 성숙사회로의 지향에 어떻게 평생학습이 기여하고 문해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이 필요해 보인다.

1996년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창립된 국제슬럼거주자연합(Slum Dwellers International)은 뭄바이 최대 슬럼지역인 다라비(Dharavi)를 상업시설과 고급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려는 비즈니스 이해관계에 저항한 바 있다. 그들은 지역공동체의 기반과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체적 대안인 공중화장실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다면 효율적 제안은 아니겠지만 주거와 위생 및 배수시설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기반한 것이다. 그들은 “빈민들도 세계시민적 연결망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간 우리의 교육적 경험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교과목을 배워야 하고 수학해야 하기에 교수자 중심의 주입식교육이 효율적 교수 방법이 될 수밖에 없고, 빠른 시간 내 성과 측정을 위해 4지 선다형이 가장 효과적 평가 방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의 수업은 항상 1인 교수자가 독점하는 형태였고 학습자의 수용적 자세로 지식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채워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수원국의 빠른 교육적 성장을 위해 이러한 방식을 유지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한 자문이다.

개도국이 갖는 잠재력과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방식의 교육적 접근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여국 중심의 지원 논리보다는 개도국 내부로부터의 대안적 견해와 대안적 미래에 대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여러 기여에 대한 상상을 존중하는 자세이다.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소수가 많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적을 때 오히려 풍요로워지는 학습사회를 지향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4. 스스로 말하게 하라

자크 랑시에르는 「무지한 스승」에서 스승의 전통적 행위인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학습자를 ‘바보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그는 실존 인물인 조제프 자코토 교수의 일화를 통해 설명이야말로 제자의 무능과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스승의 유식함과 지적 능력의 우월함을 입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꼬집으며 지적 평등의 교수자란 앎을 주입하는 자가 아닌 배움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마저 제자들이 스스로 배우도록 만드는 힘을 갖는 자라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파울로 프레이리는 교육이 ‘설명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식을 주입하려는 ‘은행적금식 교육’을 비판한 바 있다.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기도 한다.

구분	학교교육(pedagogy)	성인학습(andragogy)
교수-학습 활동	가르치는 것 - teaching	자기주도학습 - learning
학습자	학생	학습자
교사	교수자/선생님 - teacher	조력자 - facilitator
교수법	강의식	토론, 문제 해결식
학습 자료	표준화	현실 중심의 가변적
학습 동기	외재적	내재적

페다고지는 가르치는 교수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따라서 강의식 교수법과 표준화된 학습 자료를 요구한다. 반면에 안드라고지는 가르침의 활동보다는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한다. 가르치는 자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조력하는 이로 규정한다. 따라서 교수법은 토론과 문제 해결식 수업을 선호하며 학습 자료는 현실 중심의 가변적이다. 무엇보다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의 큰 차이점은 학습에 임하는 학습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페다고지는 외재적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고 입학 이후 6년이 지나면 중학교 입학이

예정된 것처럼 연령에 맞춰 당연히 거쳐야 할 국민의 의무이다. 그렇지만 안드라고지는 내재적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하지 않는 이상 학습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학습 현장이 고등학교 교실 분위기에 비해 항상 열기를 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좋아 수업을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의 사진을 보면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연령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교수-학습 현장은 매 한가지이다.



출처: 뉴스1코리아
(<https://news.v.daum.net/v/20151012132358320>)



출처: 경북일보 - 굿데이굿뉴스
(<http://www.kyongbuk.co.kr>)

우리는 여전히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전달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듯하다. 다음의 일화는 자크 랑시에르와 파울로 프레이리가 강조한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향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한다.

무위당 장일순은 저녁 무렵 길거리에서 만난 군고구마 장수가 쓴 어설픈 글씨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국 저 글씨는 어설픈게 보이지만 저게 진짜고 내가 쓴 것은 죽어있는 글씨야. 죽가짜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글씨는 장난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장일순의 「나락 한 알 속의 우주」에서

같은 맥락에서 고 허병섭 목사님은 도시 빈민이 거주한 산동네에 동월교회를 개척하며 지역 주민 중심의 사목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삶에 지친 주민들을 모임에 참석시키고 스스로의 문제를 제기하게 했고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임의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그는 주민들의 의식을 촉발하고 자극하여 동기를 부여했으며 그들 스스로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체득하게 했다. 가난하고 못 배워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도 사고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지적 능력과 인식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교육을 발생시키는 출발점이자 발전적 행동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기득권자의 기존 논리로 주민을 압도하는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을 때 그의 교육행위는 이를 정면에서 저항한 것으로, 구체적 삶의 현장에 교육과 학습이 존재한

다는 논리를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다.

5. 수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 시민으로

유네스코는 평생학습의 가치와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알기 위한 지식의 학습’, ‘아는 것을 행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기 위한 상생 공존의 학습’, ‘의미있게 존재하기 위한 존재적 삶의 학습’으로 평생학습의 네 기둥으로도 설명된다.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네 가지의 학습은 학습이 단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이후의 확장에 대한 학습의 목표를 강조한다. 학습이 단지 자신의 성장을 꾀하는 수단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존재적 삶의 학습에 대한 학습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칠곡군의 어르신 학습자들의 모습이 TV를 통해 방영된 적이 있다(2018. 12. 9). “한글을 깨우치니 세상이 보인다”는 칠곡군 태평마을 할머니들의 합창단 이야기다. 마을 할머니들은 합창단을 조직했고 발표회도 갖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한글을 깨우친 할머니들은 가사를 읽게 되자 ‘빨래터 합창단’을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태평마을 빨래터 합창단은 소위 ‘칠곡의 스타’가 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합창을 넘어 연극을 덧붙인 뮤지컬 형태로 무대를 꾸미기도 한다는데 그들의 합창단은 여타의 합창단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다.

“내가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가 합창단 노래가 된 거예요. 옛날에 못 입고 못 먹고 살 때 죽만 먹고 개떡 먹고 살 때 부르던 노래예요. 그 소리는 생전 안 잊어 먹어요”
김봉이 할머니(당시 84세).

“영감아 꽃감아 일어나소, 보리방아 품 들어 개떡 찼네. 개떡을 찼으면 적게나 찼나. 서말지기 솔으로 한 솔 찼네. 영감님 콧 구멍에 찬 바람 나고 개떡 솔에는 뜨신 김 나네” ‘영감아 꽃감아’ 노래 가사.

그들은 만들어진 가사를 외우고 부르는 것이 아닌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다. 개떡의 뜨신 바람과 돌아가신 영감님 콧구멍의 찬 바람을 비교한 노래 가사는 그들의 지난했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스무 살에 태평마을에 시집와 평생 가난한 살림을 일구며 살아온 서금자 할머니(당시 73세)는 노래를 통해 며느리 사랑이 꿈쩍했던 정 많던 시아버지와 추억을 그리기도 한다.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EEAAPXN>

이같이 학습자의 목소리를 삶 속에서 담아내는 칠곡군 할머니들의 학습 사례는 ReFLECT 프로그램을 통해 문해교육과 평생학습의 지향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ReFLECT(Regenerated Freirean Literacy through Empowering Community: 이하 ‘리플렉트’) 프로그램은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이론에 기반한 성인 문해 교육 방법이다. 학습자의 ‘의식화’가 리플렉트의 주된 개념이며 철학적 가치 지향이다. 리플렉트 프로그램은 특히 지역사회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그들의 의식을 진일보한 사례들을 도출했다. 1993년 Action Aid는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PRA)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리플렉트의 시작점이 되었다. 1995년 네팔에 리플렉트가 처음 소개된 이후 네팔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문해력을 신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우간다, 엘살바도르, 방글라데시 등 약 1,550명의 여성과 420명의 남성 대상 100개 이상의 마을에 적용된 바 있다(김계신, 2019).

리플렉트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읽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대화식, 문제제기식, 상황토론을 통해 실천 행동을 모색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다. 대부분 리플렉트에 참여했던 여성 학습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학습을 통해 문해력이 상승하였고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정치적인 역량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들은 학습을 통해 연대하게 되었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된다³⁾.

3) 관련 유튜브 자료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obYX_IqnHuk,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부르키나파소의 농촌 여성들에게 문해교육과 기술교육 및 소액 대출을 통해 여성들의 빈곤을 완화한 사례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부르키나파소의 농촌 여성들은 교육 기회의 제한으로 문해력이 매우 낮으며 그 결과 빈곤과 성불평등 문화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회구조 속에 살고 있다.

국경없는교육가회(Educators Without Borders)는 리플렉트를 활용하여 각 학습자에게 12,000시간의 문해력 교육을 제공했고 그 결과 학습자들은 정부의 문해력 테스트를 통과하여 기술 및 직업 기술 개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가금류 농업 전문가가 한국에서 파견되어 여성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공하고 소액 대출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마을의 역량 구축 및 생산자 협동조합 등 조직되고 문해력 학습자의 89.4%가 정부시험에 합격했으며 각 가구의 평균이익은 수익률 160%를 달성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문해력 신장을 넘어 가정과 마을의 젠더 관계를 변화시켜 가정 분쟁과 폭력이 적어지고 여성들 또한 권한과 재정적 독립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증언하고 있다⁴⁾.



4) <https://sdgs.un.org/partnerships/poverty-alleviation-empowering-women-through-literacy-campaign-skill-training-and>

이 사례는 UN 경제 이사회가 선정한 SDG Good Practices로 등재된 바 있다. SDGs의 목표 4에 해당되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목표 달성 외에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융합적 목표 달성의 결과로 이어졌다.

6. 마무리하며

글을 마무리하면서 문해교육, 기초교육을 통한 평생학습의 지향점에 대해 세 가지 고려할 점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쌍방성의 원리이다. 우리는 자칫 “누군가를 돕는 일은 선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도 선이다”라는 생각을 한다. 과연 그럴까? 당사자의 의견과 잠재력을 이끄는 시도 없이 교수자의 권력을 그대로 주입하는 방식이 여전히 평생학습에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눈높이의 원리이다. 공여국이 개도국의 학습자를 향한 시선에는 항상 나의 눈높이에 상대를 올리려는 의도가 있다. 이솝 우화의 여우와 두루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 진정한 존중과 배려일 것이다. 상대를 나의 입장에서 목표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로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다. 셋째, 미완성의 원리이다. 자칫 과도한 친절은 자신에게도 해가 될 뿐 아니라, 상대에게는 거친 무례만큼 불쾌감과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공여국은 수원국의 학습자에게 완성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제공자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떠난 공백은 크게 남게 된다. 미완성의 작품, 여백이 있을 때 채우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공여국으로서 개도국에 비해 교육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평생학습의 가치와 개도국 중심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전략을 논의해보았다.

이제는 교육적 상상이 필요한 때이고 ‘능동적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적 접근을 구현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시혜와 호혜의 수평적 위치 지움은 제공자가 우선적 권력을 갖는 한계에 머무는 것이 아닌 수혜자의 능동성을 강화할 때 결과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0). 2021 본예산.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평생교육백서.
- 김계신(2019). A Case Study of Adult Women's Literacy and Empowerment in ReFLECT program in Nepal.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www.korea.kr
- 유네스코(2021). 2020 세계교육 현황 보고서.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20). 제4차 세계 성인학습 및 교육 보고서: 참여, 형평 및 포용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한국어판.
- 장일순(2016). 나락 한 알 속의 우주(개정증보판). 녹색평론사.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2021). 나라경제(2021년 5월).
- 한국노동연구원(2019). 월간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 OECD Statistics
- World Bank Open Data
- 경북일보 - 굿데이굿뉴스 (<http://www.kyongbuk.co.kr>)
- 뉴스1코리아 (<https://news.v.daum.net/v/20151012132358320>)
- <https://sdgs.un.org/partnerships/poverty-alleviation-empowering-women-through-literacy-campaign-skill-training-and>